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4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 주발제: 엄길정("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과거 현재 미래" 공동저자)
- 보조발제 및 패널: 김상록(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쟁취 투쟁’과 더불어 2012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입니다. 이 투쟁들은 공히, 노동조건 단순변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내 노동과 공장밖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투쟁입니다. 때문에 두 가지 투쟁의 과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투쟁들은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만의 투쟁일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20만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확장될 것이며, 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본가들에게 주간연속 2교대는 착취 시스템의 합리적 변경이지만,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삶의 전망을 공장 안팎으로 다시 세워내는 투쟁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착취 시스템의 합리적 변경을 고민해야 하나? 노동자 삶의 전망을 고민해야 하나?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동자 삶의 전망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주간연속2교대 투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테이블협상은 10년으로 족합니다. 이제 어떻게 투쟁할지 당장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